



## 안전과 함께 이웃 사랑의 정 실현

### KT화곡지사



▲ 송중근 지사장

새 동저고리에 빨간 댕기를 맨 조카 녀석의 엉거주춤하는 새배에 괜시리 행복해지는 1월이다. 고사리같은 손으로 새뱃돈 꼬옥지고 '새해에는 받아쓰기도 잘하고, 엄마 말씀도 잘 들어야지' 하는 당찬 포부처럼 우리내 현장도 새해 계획과 함께 무재해 1등을 꿈꾼다.

1976년 12월 4일 개국하여 영등포구,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등 서울 4개구와 경기도 광명일대 등에 원활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품질의 초고속 인터넷을 다량 공급함으로써 지역 정보화 사회 조성에 선도기업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KT 화곡지사(송중근 지사장)에서 안전경영방침과 2004년 새해 포부를 들어보았다.

#### ■ 내 가정의 행복은 내 직장의 안전에서부터

「내 가정의 행복은 내 직장의 안전에서부터」라는 신념을 가지고 항상 주변의 위험요소를 살피고 작업시 기본안전수칙을 철저히 준



수하여 사소한 안전사고도 미연에 방지하는 KT화곡지사는 2003년도 동절기 재해예방 및 책임수행에 있어 본부내 자체점검결과 안전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우수안전관리 사업장이다.

직장에서의 사고가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지만 그로 인한 여파는 겹잡을 수 없을 만큼 방대함을 지적하는 송중근 지사장은 매월 4일 운영하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적극 활용한다. 월별, 절기별로 해당하는 안전중점사항을 강조하여 요즘과 같은 동절기에는 눈으로 인한 작업차의 전복 사고 등을 집중 관리하고, 해빙기나 하절기에는 그 절기 특성에 맞는 위험요소를 적극 단속한다. 각 단계나 부서별 맞춤 안전관리에서는 각 특성에 맞게 교안을 작성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법이 개정되면 그때 그때 개정된 법에 맞춰 실질적인 교육을 행하도록 한다. 맨홀 작업시 산소결핍이나 가스누출로 인한 사고가 없도록 분기별로 점검·관리하고 이상 발견시에는 점검자뿐 아니라 누가 봐도 알고 주의할 수 있도록 맨홀뚜껑에 빨간색으로 표시하여 시각적으로 부각되도록 조치함은 안전한 사업장 구현을 위한 KT화곡지사의 안전 사랑 일부분에 불과하다. 이로 인한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 모두가 편하고 쾌적하게 근무함을 물론이다.

이외에도 매주 금요일은 '안전교육의 날'로 지정하여 부서 스스로 작업장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해소하여 안전작업환경을 확보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마인드 형성에 모두가 노력하고 있다.

또한, 지사장과 노조지부장이 근로자들과 함께 작업시작전 점검을 실시하여 근로자들의 안전에 동참하고 근로의욕 상승을 위한 격려도 아끼지 않는다.

### ■ 전사적인 KT의 산업안전대회

KT는 전국에 400여개의 사업장이 있다. 전국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 'KT산업안전대회'는 각 본부에서 대표를 지정하여 안전관리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부서장 등이 같이 참여하고 발표하여 지사간 안전활동을 서로 배우고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보다 나은 안전 KT로 거듭나기 위한 KT만의 안전활동이다.

대회에서 지적된 정문, 게시판, 각 위험요소 등에 부착된 표어나 포스터가 비록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에서 비롯되는 근로자의 안전마인드는 KT전체, 나아가 우리내 현장으로 퍼지는 안전 전염병으로 확산될 것이다.



이외에도 KT 화곡지사는 산악회, 탁구회, 신우회, 낚시회 등 다수의 건전 모임이 있다.

자신의 취미와 특기를 살리며 근로자 상호간의 유대관계 형성에도 도움을 주고, 그로 인한 업무에서의 협력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회사 차원에서도 건전모임 예산의 50% 이상을 적극 지원해주고 있어 근로자들의 참여는 더욱 돋보인다.

### ■ 이웃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KT 화곡지사

보통 우리는 연말연시라 했을 때 소외된 우리의 이웃을 둘러보고 생각하게 되지만, KT 화곡지사인들은 1년 365일 이웃 사랑의 정을 실천하고 있다. 작은 사랑도 이웃과 함께 나누면 큰 기쁨이 된다하여 매월 일정 금액의 장학금을 소년·소녀 가장들에게 지급하고, 정신지체 장애우 70여명이 수용된 인근 사회복지시설에 방문하여 재활용품과 김치 등을 전달하고 같이 식사하며 모두가 이웃사촌임을 확인한다.

이 활동에서는 전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함은 물론, 일부 직원들은 포장도 뜯지 않은 새 난방용품 및 식기 등을 내놓아 KT 화곡지사인들의 훈훈한 정을 배가시켰다.

이외에도, 물질적인 기부만이 아닌 직원들 스스로 직접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등산도 같이 하며 이웃의 소중함을, 사랑의 위대함을 널리 전파하였다.

2004년 '품질로 고객만족, 서비스로 고객감동'이라는 슬로건으로 새해에도 고객에게 신뢰받는 고객만족 경영활동을 펼치겠다는 KT 화곡지사가 안전에서 비롯된 우수한 품질, 최고의 서비스로 고객 모두에게 사랑받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성호연기자〉

